

“폭죽터지는 줄 알았는데”...홍콩 덮친 화마 ‘망연자실’

건물 전체 거대한 불기둥...인근 젓가루·플라스틱 악취 진동
헬체어·보조기 사용 고령자 많아 피해 확산...“무사히 돌아오길”

“처음엔 그저 폭죽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 단지 전체가 보수 공사 중이어서 주민 대부분이 창문을 닫아뒀고, 그래서 화재 경보도 듣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여겨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 ‘왕 폭 코트’(Wang Fuk Court) 아파트에서 가족과 40년 이상 살아온 60대 여성은 26일 오후 화재 상황을 떠올리며 AFP통신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2천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19층에서 살다가 화재 발생 후 황급히 대피했다.

주민 60대 위엔도 “이 동네에는 헬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고령 주민이 많은데, 다들 당장 잘 곳도 없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AFP는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실종된 가족이나 지인의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총혈된 눈으로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취재진은 타들어 가는 나무에서 ‘파지직’ 거리는 파열음이 들렸고, 밀집한 아파트 건물이 거대한 불기둥이 돼 연기와 재를 뿜어냈다고 화재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

일 새벽녘까지도 피해 건물의 전(全) 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공기 중에는 젓가루 퍼불탄 플라스틱의 악취가 풍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들은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무력감과 비통한 심정을 호소했다.

50대 주부 설리 찬은 “불이 나는 것을 지켜봤지만,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57세의 타이포 주민은 “재산 피해는 어쩔 수 없으나, 노인이나 아이든 모든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화재 진압 작업과 동시에 당국이 대형 버스를 이용해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도 대피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진화 작업을 위해 주변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현지 경찰은 피해 아파트의 창문을 폴리스틸렌 보드가 막고 있어 화재가 더욱 빠르게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건물 보수에 사용된 대나무 비계와 자재를 타고 주변 건물까지 불이 확산



26일(현지시간) 중국 홍콩 타이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 남성이 아내가 집에 갇혔다고 절규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지난해 7월부터 보수 공사용 대나무 비계와 녹색 그물 자재로 건물 외부가 덮여있었다.

이 비계와 그물을 타고 불이 번지면서 26일 오후 발생한 화재는 이튿날인 27일 오전까지도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화재로 현지시간 오전 8시15분 기준 소방

관(1명)을 포함해 4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79명이 실종 상태이고 구조된 인원 중 45명이 중태에 빠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북미, 10월 이전 실무자 협의...정상회담 성사 대비”

북한과 미국이 10월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자 간 협의를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북미 관계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북한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하순 경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거듭 드러낸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사전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3번 개최했던 1기 행정부 당시 반복해 열었던 실무 접촉을 재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10월 이전 북미 실무 협의의 구체적 장소, 참석자 등은 소식통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신문이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1기 행정부 당시 있었던 북미 실무자 간 대화 채널을 회복하려 했으나, 북한이 반응

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연합뉴스

IMF, 우크라이나 추가 금융지원 합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와 82억달러(약 12조원)의 신규 금융 지원에 합의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IMF는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와 신규 확대 금융(EFF) 지원을 실무진급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5월 IMF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156억달러(22조9천억원) 규모의 EFF 프로그램을 갱신해 향후 4년간 82억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크라이나는 기존 합의된 EFF 프로그램으로 156억달러 가운데 이미 108억달러(15조5천억원)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자금이 계속 필요해진 데다가 기존 EFF 합의가 2027년 만료될 예정이라 추가 자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백악관 코앞서 군인 2명 피격...추수감사 전날 충격

“병사들 겨냥 발포”...범인 현장서 체포

미국 수도인 워싱턴DC의 백악관 인근에서 26일(현지시간) 순찰중이던 웨스트버지니아 주(州)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미국에서 성탄절과 함께 온 가족이 모이는 양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 전날 대낮에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군인 대상 총기 범죄로 인해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그 또한 중상을 입었다.

사건은 오후 2시15분경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두 블록 떨어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워싱턴DC 경찰청 제프 캐롤 부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주방위군 대원들이 순찰을 하던 중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면서 팔로 총기를 들어 이들에게 발포했다”고 밝혔다.

캐롤 부청장은 또 용의자가 현장에 있던 다른

주방위군 대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으며, 아직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체포된 용의자가 단독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이 ‘표적 공격’이라는 점”이라며 “한 개인이 이들 대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을 맞은 주방위군 대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상황이다. AP 통신은 이들 중 1명은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범인 역시 총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인 상태다.

AP에 따르면 범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범인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로 2021년 9월 미국에 입국했으며, 미 북서부의 워싱턴주(州)에 거주해 왔다고 2명의 법 집행기관 관계자 등이 밝혔다.

통신은 “용의자의 이름은 법 집행기관에 의

해 ‘라마놀라 라간알’로 확인됐으나, 당국은 그의 배경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고 전했다.

CBS 방송은 범인의 나이가 29세이며 범행에 권총을 사용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때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총격을 받은 주방위군 병사가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일기도 했지만, 모리시 주지사는 이후 “현재 우리는 두 대원의 상태에 관해 상충되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정정했다.

캐롤 부청장은 회견에서 당시 총격을 받은 주방위군 병사들은 무장한 상태였지만, 이들이 범인을 쏘는지, 다른 주방위군 병사들이 체포 과정에서 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번 사건을 ‘연방 법률 및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 관련 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